

# 출장보고서

## I. 출장개요

1. 출장자: 박복영 실장, 허인 팀장,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안지연 부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0. 9. 10~ 9. 12
3. 출장지: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AEP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at Keio University" 국제세미나 발표 및 토론 참석

##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2010.09.10	서울→도쿄	이동	
2010.09.11 ~ 09.12	도쿄	AEP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at Keio University" 국제세미나 참석	
2010.09.12	도쿄→서울	이동	

### Ⅲ. 활동 내용

- AEP (Asian Economic Panel) 편집위원회가 2010년 9월11, 12일 이틀동안 동경 게이오대학에서 개최되어 KIEP의 박복영 실장, 허인 팀장,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안지연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음.
- AEP는 일본 21st Century Center for Excellence at Keio University, 미국의 The Earth Institute at Columbia과 본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 박복영 실장은 제1일 오후 세션 중국 무역불균형 논문에 대한 토론과 제2일 오전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허인 팀장은 제1일 오전 세션 북한 관련 지정 토론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제2일 오전 세션에서 동아시아 FTA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안지연 부연구위원은 제2일 오전 세션에서 중국전기가격 정책 논문에 대한 토론은 수행함.
- 이번 AEP 미팅은 총 9개의 논문 심사와 게이오대학측에서 준비한 일본관련 특별주제 3개 논문에 대한 토론 진행되었음.
- 심사대상 논문의 주제가 중국관련 연구에 치우쳤으며 전반적으로 논문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평가대상 논문 9개중 6개의 논문이 중국연구였으며 그중 3개의 논문은 중국의 경제성장모델을 다루어 아시아 신흥국 관련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음.

- 게이오대학 측에서 준비한 일본 경제와 금융규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3개의 발표논문은 9월10일 일본 진흥은행 파산과 맞물려서 세미나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음.
- 이번 행사에서는 9개의 논문 중 3개의 논문이 한국연구진에 작성되는 등 한국연구진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음.
- 세미나 이후 개최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9개 논문 중에서 4개는 발표 부적격으로 인정되어 발표자에게 통보될 예정임.
- 2011년 AEP 10주년 행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하기로 논의되었음. 또한 게이오대학측의 지원은 2012년 이후 불투명한 것으로 통보받음.
- 또한 세미나 진행 중 일부 참여자들의 논문과 관련없는 질문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행사진행 일정이 늦추어지는 문제가 지적 있었음.